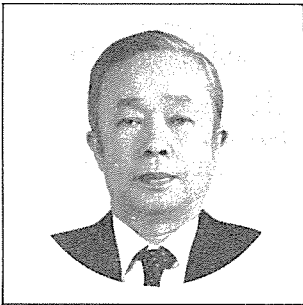


1989년도 科學技術人 新年朝餐會 開會人事

“先進福祉社會건설에 적극기여”

— 새로운 科學技術人像 정립해야



朴 泰 源 회장

지난 한해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우리나라 科學技術의 振興과 暢達을 위하여 묵묵히 소임을 다하여 주신 우리 科學技術人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돌이켜보면 작년 이맘때 이장소에서 우리는 科學立國·技術自立의 意志를 다지고 새해를 시작한지가 오늘로서 꼭 1년이 지났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우리는 온 人類의 祭典인 제 24회 올림픽을 사상최대의 국가가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끝냄으로서 “世界속의 韓國”의 이미지를 드높이는데 우리 科學技術人들도 각 분야에서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科學技術人 여러분!

서기 2000년대가 불과 10여년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世紀의 바뀜이라는 大變換期를 앞두고 우리 국민은 매우 큰 꿈과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방이후 온갖 忍耐와 刻苦를 겪으면서 그동안 이룩해 놓은 20세기 후반의 經濟發展과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民主化 過程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2000년대에 이르러 經濟, 社會, 文化 각 부문에 걸쳐 先進水準의 福祉社會로 진입하고자 하는 염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염원을 달성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科學技術의 跳躍만이 중요한 關鍵이 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科學技術 發展을 위한 諸般與件은 날로 어려워만 가고 있습니다. 특히 保護主義의 強化와 더불어 製品開發과 관련된 技術이 통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허권, 저작권 등 지적 소유권 보호의 강화로 인하여, 최신 科學技術의 지식마저 擱得하기 어려워 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결국 앞으로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의 힘으로 科學技術開發을 이룩해야 한다는 외로운 현실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國家의 次元에서의 最優先

적인 科學技術施策이 절실하게 要求된다고 하겠읍니다.

그동안 우리 科總은 創立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20여년 동안 100만 科學技術人의 구심체로서, △科學技術政策의 연구 개발 △學會 學術活動 육성을 위한 지원 △科學技術 정보교류 및 國際協力강화 △科學技術 풍토조성 및 科學技術人의 권익신장 등 經濟發展을 뒷바침할 수 있는 科學技術 政策의 개발과 활성화에 시대적인 제약과 주어진 여건하에서 쉬지 않고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왔읍니다.

앞으로도 科總은 基礎研究와 人力養成의 중추기관인 大學과 學會에 대한 과감한 投資擴大와 지원을 유도하여 大學의 분야성과 같은 참다운 본연의 연구분위기를 조성하는 동시에 學· 研· 産協同의 활성화를 위한 制度的 支援方案

을 강구하는데 政府와 힘을 합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갈 것입니니다.

그러나 최근 제6공화국의 출범과 더불어 政治, 社會的 環境이 과거의 權威主義的 制度로부터 民主的 制度로 바뀌어 감에 따라 우리는 이와같이 변모되어가는 社會發展에 적응하여 科學技術界의 民主化를 도모하면서 특히 2000년 대에는 기필코 先進福祉社會를 구현하여야 한다는 國民的 염원에 副應하기 위하여 우리의 科學技術政策을 새로운 視覺에서 再照明하고 그 추진방향을 제시해야할 時點에 이르고 있다고 하겠읍니다.

따라서 우리 科學技術人들은 과거 다소 被動的인 立場에서의 政策立案에 참여하였던 자세를 벗어나서 科學技術의 主體로서의 能動的인 位置를 되찾음으로써 우리나라 科學技術의 현실



에 기초한 합리적인 政策을 모색하여 政府에 반영시키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함께하는 새로운 자세를 정립할 때가 왔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때, 科學技術人의 총본산인 科總의 役割과 使命도 再定立되어야 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科學技術을 선도할 수 있는 능동적인 역할이 추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科總이 100만 科學技術人의 대변자적 위치에서 수행해 나가야할 중요한 역할중에 하나는 科學技術 優位の 풍토를 조성하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科學技術의 중요성과 科學技術 跳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마땅히 관계요소에 科學技術人이 두루 등용되어야 하겠으며 현재 他部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위에 처하고 있는 상태가 해소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科學技術人의 권익이 신장되고 士氣가 진작되어 연구는 물론 말은 분야에서 더욱 정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우리 스스로가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나아가서는 科學立國과 技術自立的의 긴박성에 관한 온 國民의 共感帶가 형성되고 청소년기부터 창조의 정신을 함양시킬 수 있는 새로운 國民科學化運動의 효율적인 추진방안도 모색되어야 하겠습니다.

科學技術 優位の 風土가 조성되어지기를 被動的으로 기다릴 것만이 아니라 우리 科學技術人들 스스로가 자기 啓發에 힘쓰고 國家 科學技術 발전에 헌신한다는 봉사정신을 갖고 대국민 홍보요원임을 자처할때 비로서 진정한 의미의 優位風土가 조성되고 과학기술계의 民主化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아울러 소련을 비롯한 東歐圈과 中國, 北韓과의 科學技術 관련자료의 교환도 활발히 전개하면서 오는 1990년 7월로 계획하고 있는 國際綜合學術大會도 상호교류를 통한 범세계대회로 승화·발전시키고자 합니다.

한편, 우리 科總은 1966년 71개의 團體로 출발하였으나 오늘에 이르러서는 221개 團體會員

을 갖는 우리나라 科學技術人의 總合體로 성장하였습니다. 科學技術의 主體로서의 우리 회원이 어느정도 일치단결하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어려운 우리의 주장도 관철할 수 있으리라고 믿으면서 이와같은 우리의 의지는 결국 2000년대 福祉社會를 구현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모든 기능과 역할은 科總이 財政적으로 完全自立을 이루고 이러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 뒷바침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의 모색이 급선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科總이 모든 會員들의 總意를 수렴하여 科學技術界의 숙원사업의 하나인 '科學技術振興센터'의 건립을 추진하는 것도 결국 이러한 구상의 일환이라고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2000년대를 불과 10여년 앞둔 現時點에서 科總을 중심으로 우리 科學技術界가 수행하여야 할 當面課題로서 △先進福祉社會를 지향하는 科總의 位相定立 △技術自立的의 基礎擴充을 위한 基礎研究와 人力養成 △科學技術 풍토조성 △會員團體와의 협력과 再整備에 관한 문제 등을 성취하기 위하여 本人은 회원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끝으로 우리 科學技術人들은 다가오는 시대가 科學技術이 國家發展을 주도하는 시대가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責任과 使命을 다시 한번 통감하고 그동안 우리가 축적하여 놓은 노력과 잠재력을 바탕으로各界의 意志와 努力을 집결시켜 2000년대 先進福祉社會 건설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지혜를 모아 새로운 科學技術人像을 정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고 家內에도 萬福이 같이 하시기를 衷心으로 기원합니다.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
會長 朴泰源